

보배롭고 존귀한 전도자

이사야 43:1-7

정희권 선교사님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하는 참사랑교회다. 타이틀이 좋고 방향이 좋다. 올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은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고 돌아가지만, 오늘 한 가지 다르게 밀려오는 감동은, 찬송이 살아있구나 하는 것이다. 영적인 바로미터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는 모습이다. 말씀에 반응하는 모습이다. 이것이 개인과 교회의 영적 상태다. 예수님 오시는 그 날까지 입술을 열어 찬양하고, 아멘 할렐루야 하며, 호흡하는 순간까지 찬양하는 전도자 여러분이 되시기 바란다. 왜 오늘 이 귀한 자리에, 복된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지 나는 질문했다.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고민하면서 기도했다. 선교사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기도하라. 왜 산적같은 선교사를 이 강단에 하나님이 세우셨는지 질문해 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한다. 오금역 계단을 허겁지겁 올라오느라 숨이 멎을 뻔 했다. 필리핀 생활이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 가지고 (웃음)

1. 하나님의 부르심

(1)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깨달을 때 인생 변화가 일어남

나는 8남매를 눈물과 기도로 길러 주신 믿음의 어머니의 영적 배경 속에서 목사, 선교사가 되었다. 어떻게 하면 무릎으로 기도하는 어머니께 효도하겠는가 고민했다. 그런 착한 선교사도 목사였다. 선교 열심히 하는 것이 효도가 아니겠나 해서 열심히 선교를 하면서 땀을 많이 흘리고 수고를 많이 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터닝포인트를 만들어 주셨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이 말씀을 1995년에 합숙훈련을 받으면서 들었다. 혹시 이 자리에 억지로 오신 분이 있다면, 예수는 그리스도, 그분이 모든 문제 해결자,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되기를 바란다. 그러면 여러분은 복음을 누리며 전도자로 서시게 될 것이다. 이런 보배롭고 존귀한 전도자의 삶을 모두가 누리기를 축원한다.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인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전도, 오직 선교, 오직 세계복음화, 오직 램네투 오늘날은 이것을 자연스럽게 고백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나를 바꾸어 주셨다. 인생 방향이 하나님과 맞거나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나의 영적인 내비게이션이 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계신다.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가까이 계시고, 그분만 우리가 바라보고 가면 모든 문제 해결되지 않나. 그런데 그분을 어떻게 주인으로 모셔야 하는지를 모르니까 고생하는 것이다. 우리가 30년 동안 선교지에 있다 보니까, 한국에 오면 모든 것이 어색하다. 한국의 좋은 것들을 누릴 줄을 잘 모른다. 선교대회가 되면 한국에 돌아가니까, 우리 램네투들이 얼마나 그 날을 기다리는지 모른다. 한국에 나온다는 소망을 가지고 열 달을 하루같이 지낸다. 그런데 우리는 인천공항 도착하면 감동이 별로 없다. 출기만 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기에 망정이지. (웃음) 왜 추운 날에 대회를 하나 싶다. 오면 또 옷도 철갑같이 입어야 하고, 양복도 입어야 하고, 넥타이도 매어야 하고, 너무 불편하다. 그래도 그런 나를 생각해 주시고, 찾

이주시고, 여기에 불러주신 것이 감사하다. 목사님이 복음을 사랑하시고 후대를 사랑하시고, 또 귀한 목회 후배들을 사랑하시고, 현장을 사랑하시고, 램네투와 성도를 사랑하신다. 얼마나 뜨거운 마음을 가지신 분인지 모른다. 나도 최목사님 같은 목사님이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한다. 모든 사람을 품고 이해하고 따뜻한 가슴으로 성도를 사랑하도록 나를 부르신 것 같다. 앞으로 10년 정도는 더 달려가려고 생각한다. 최목사님 닮은 후배 선교사가 필리핀에서 잘 사역하고 있구나 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찾아가기를 바란다. 손을 잡아주는 자로, 살려주는 자로, 남은 생애에 전도자로 쓰임받게 되기를 바란다.

(2)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시고 지명하시고 부르심

이사야 43장을 보니까, 힘이 되고 새롭게 부딪혀오는 말씀이 있다.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내가 너를 조성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이 귀한, 힘 있는 말씀이 나에게 부딪혀 왔다. 나는 누구인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조성하시고 디자인하시고 품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의 것이다’ 하시는 것이다. 우리 이름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지명하셨다는 것이다. 최목사님께서 수백 명 선교사님 중에서 나를 지명하면서 교회 와서 설교를 해 달라고 하니 내가 감사가 되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 중에서 나를 지명해서 부르시고 내 것이라 하셨으니 얼마나 힘이 되고 감사가 되겠는가? 이것을 계속 묵상해 보라.

(3)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심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고 했다.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내 모습 이대로. 우리가 못생겼다고 생각해도, 만족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해도, 하나님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가 되었는가.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자녀가 아빠를 부르면, 아빠는 그 다음 말을 안 해도 알아듣는다. 여러분이 아빠, 아버지라 하는 고백이 있으시기를 축원한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으셨다.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도 없는 죄인 된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우리의 주홍같이 붉은 죄를 양털같이, 눈같이 희게 해 주시며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것이다. 그러니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일에 내 생애를 드리겠다고 고백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받은 것이다.

2. 필리핀 선교보고

(1) 필리핀 선교의 시작

나는 1991년 10월에 필리핀에 갔다. 그때 가면서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을 붙잡았다. 사도행전 20:22-24의 말씀을 붙잡고, 우상국가 필리핀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하면서 갔다. 85%가 가톨릭 우상과 종교에 빠져 있는 현상이다. 30년 동안 사역하는데, 한 사람이 매서운 질문을 해 왔다. “왜 한국에서 여기에 왔습니까? 우리나라는 85%가 크리스천인데 한국은 몇 %입니까?” 그러면서 한국으로 돌아가라는 것이다. 필리핀 천주교인들은 자기들은 자기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한다. 구원의 확

신은 없다. 죽어 봐야 안다고 한다. 여기에 나는 사도행전 20:22-24의 말씀을 붙잡고 갔다. 진도자 바울의 고백을 붙잡고 갔다. 필리핀 바기오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3천 명이 죽었다. 그 소식을 듣고 거기에 와 있던 많은 선교사들이 고국으로 돌아가 버렸다. 그곳이 폐허가 되어서 희망이 없는 곳이라는 소식을 듣고 그 현장으로 2천 달러를 쥐고 가게 된 것이 1991년 10월이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기도했다. “하나님, 내 생명을 필리핀의 영혼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그 고백이 나를 지금까지 필리핀에서 필리핀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27년째 그들을 살리는 선교사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들어주시는 이유가 되었다.

(2) 필리핀 현장사역

나는 해마다 고백한다. 올해가 내 생애 마지막 해가 된다 해도 후회 없도록,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다 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갔던 주님과 스테반처럼 고백할 수 있도록 당당히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만큼, 최선을 다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는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올 한 해를 또다시 나에게 주셨다. 그러다보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나는 요일만 알고 살아간다. 주일은 예배인도, 월요일은 현장사역, 화요일에는 현지 학교, 전도학교, 신학원, 수요일에는 다락방 신학대학 학생들 강의 하는 식이다. 그러면서 ‘오늘은 이 곳, 내일은 저 곳, 이 복음 전하리.’ 나는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 영상을 보면, 초등학교 사역을 7년 동안 지속하고 있다. 바닷가 어촌 사역이 있다. 가난한 어부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도 8년째 지속하고 있다. 필리핀 도시 지역은 많이 발전했지만, 여전히 산간, 어촌은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빈부격차가 심하다. 그래서 이 어촌에는 교회도 없어서, 나무 밑에 모여서 예배를 같이 드린다. 우리가 간다 하면 나무 밑에 다 모인다. 그래서 함께 말씀 듣고 예배한다. 우리 램넌트들이 가서 찬양도 하고 말씀도 전한다. 이 현장을 보고, 한국인 성도 하나가 보트 하나를 만들어서 한 가정에 보내준 것이다. 램넌트 배라고 이름을 붙였다. 팔라완에 램넌트 1호가 있고, 여기에 새로 만든 작은 배는 램넌트 2호다. 이렇게 축복하고 배를 띄우게 했다. 다음은 다락방신학교다. 여러분이 기도해주시고 헌금해주셔서 저 사역이 진행되고 있다. 귀한 램넌트들이 말씀과 학문을 익히며 잘 자라고 있다. 재학생은 한 50명 정도 된다.

(3) 필리핀 선교를 위한 기도제목

필리핀 인구는 대략 1억 1천만 명 정도 된다. 세계에서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 중에서는 3위의 인구를 가지고 있다. 동남아에서는 대표적인 영어 사용 국가다. 복음적으로 보면 황금어장이다. 내가 동네로 가기만 하면 나무 밑으로 어른들 아이들 할 것 없이 줄줄 따라붙는다. 내가 필리핀 대장처럼 생겨서 그런지, 소문이 나서 가는 곳마다 따라온다. (웃음) 거기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황금어장이고 기회의 땅이다. 지금 200만 명 되는 필리핀 사람들이 노동자로 전 세계에 들어가 있는데, 가는 곳마다 환영을 받는다. 이 황금어장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가는 곳마다 지교회와 세워지고 있는데, 이제 이 지교회들을 묶는 전도학교를 세워서 나가고 있다. 나는 지금 50전도학교를 올해의 목표로 두고 있다. 한 전도학교에 6곳에서 10곳

의 지교회가 연결되어 있으니, 50전도학교라면 300에서 500군데 지교회가 세워지게 된다. 학교를 여러 군데 또 세우고 있다. 램넌트 후대 사역을 위한 것이다. 복지와 NGO사역을 또한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다락방신학교는 신학과와 교육학과 두 학과로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서 졸업한 학생들이 램넌트 학교로 복음 가진 교사가 되어 많이 들어갔다. 그러니까 교목이 따로 필요가 없다. 이들이 수업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며 예배를 인도하고 있다. 우리 대학 현장에도 우리 졸업생들이 교수가 되고 사무행정 파트를 맡고 있다. 대통령상까지 받은 뛰어난 램넌트인데, 외부 여러 학교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지만 나는 오직 이 학교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하는 인재다. 한 달에 300만 원이 운영비로 필요한데, 여러분이 100만 원을 지원해 주시고 있어서 우리가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다. 또 많은 목사님들이 들어오셔서 강의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고 계신다. 이 일이 11년째 진행되고 있다. 이제 두 번째 10년이 되어서, 제2의 시대를 염두에 두고 있다. 더 힘 있게 학생들을 길러내는 학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3. 한 나라를 품는 선교 시작

여러분은 전 세계를 가슴에 품고 있으니 가슴이 터질 것 같을 텐데, (웃음) 혹시 아직도 한 나라가 아직 마음에 꽂혀있지 않다 하는 분들은 얼른 필리핀을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내가 필리핀을 한 번 마음에 담아보리라’ 했으면 좋겠다. 가까운 나라다. 영어가 통하는 나라다. 영적인 것에 관심이 많은 나라다. 차를 타고, 호텔에 가도, 곳곳에 God is good, Jesus loves you라고 붙어 있다. 여러분이 필리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락방 신학대학이 부지를 마련하도록, 건물도 짓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원도 하고 박사과정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메인 스폰서 교회다. 함께 기도해 달라. 필리핀은 가까운 나라다. 다녀가시기도 좋다. 신문 한 번 보면 도착한다. 이런 현장을 위해 특별히 기도하면서, 한 나라를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필리핀이 여러분 가슴에 담겨지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가는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 ‘필리핀으로 나를 보내주세요’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필리핀을 가슴에 품어라. 필리핀에서 잘 준비하면 하나님은 전 세계로 보내실 것이다.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은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 자녀가 필리핀에서 세계로 가는 선교사가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의 선교의 가정이 되고, 참사랑교회가 세계선교를 위해서 가장 모델적인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한다.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는 모든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축복된 시간에, 부족한 중을 보내시고, 필리핀과 영혼들과 선교 현장을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우리 가슴에 한 나라, 한 영혼이 담기게 해 주옵소서. 어린 램넌트들이 가슴에 담겨지는 은혜를 응답으로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평생이 생각없이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위하여, 영적 내비게이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아들딸, 전도자라 말씀해 주신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평생을 울리게 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